

no. 670

# HYANGJANG

향장

Skin Longevity is the *New*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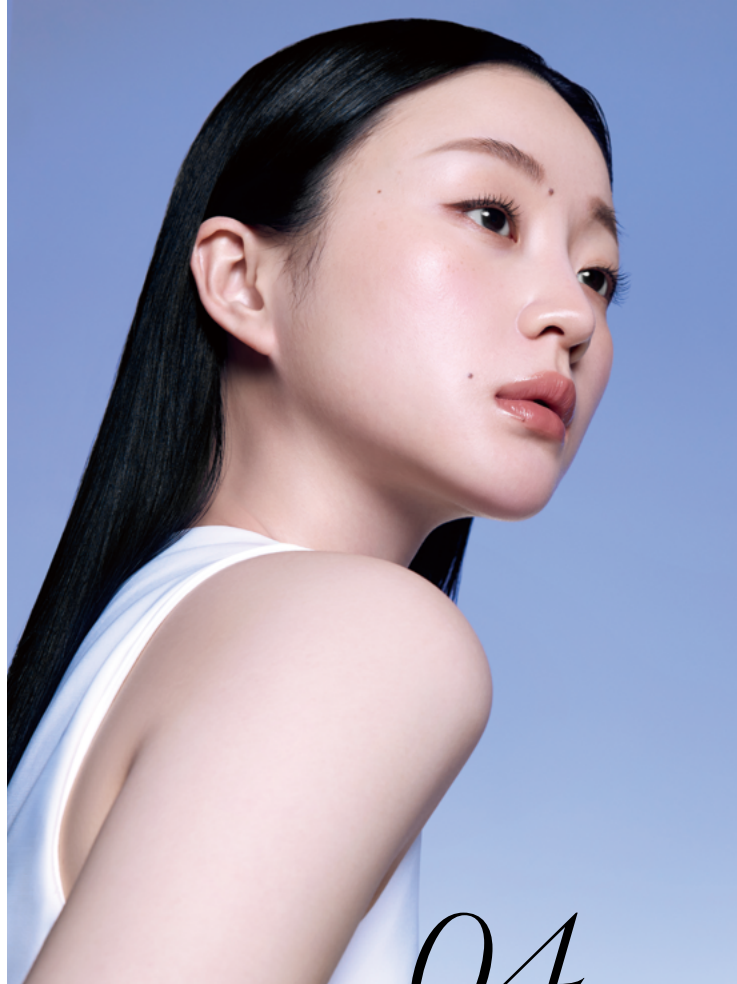
향장

no. 670

www.apgroup.com  
hyangjang@hll.co.kr  
copyright 2026 amorepacific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매거진입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1일  
발행 통권 670호  
발행인 김승환  
편집인 김중빈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뉴커머스 콘텐츠팀  
인쇄 세종씨앤피(주) 02-467-5041  
인쇄인 나경록  
기획·편집 HLL중앙  
디렉터 박소은  
디자인 전은경



04

SPECIAL

# SKIN LONGEVITY IS THE NEW STANDARD

- 04 TREND 피부 시간을 설계하는 새로운 기준, 스킨 롱제비티
- 06 STORY 보이는 변화를 넘어 피부 시간을 재정비하는 5-STEP
- 18 MAKEUP 뉴트럴한 컬러로 피어오르는 봄의 운기
- 24 TECH 빛의 정교함으로 완성하는 메이크온의 진화된 홈 에스테틱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9년간 670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뷰티 매거진입니다.



18

## LIFE & WELLNESS

- 48 ROUTINE 속부터 완성하는 웰니스 루틴
- 50 HAIR 피부보다 계절을 먼저 알아차리는 두피 체크리스트
- 52 SUNCARE 선택이 아닌, 피부를 대하는 태도 선 디펜스
- 54 PLACE 아모레 에비뉴의 미식 공간 '컨플릭트스토어' & '왓어샬러드'
- 58 ITEM 에디터가 눈여겨본 시즌 추천템

36



## PRODUCT

- 28 FOCUS 다시 질어지지 않는 흐름, 진정한 브라이팅 케어
- 32 FOCUS 노화를 늦추는 보습 & 탄력 전략
- 36 SPOTLIGHT 고기능을 넘어선 반응형 케어, NEW 클리니컬 레스폰스
- 44 ISSUE 봄철 불청객에 대응하는 클렌징 공식



52

# SKIN LONGEVITY IS THE NEW STANDARD

피부 시간을 설계하는 새로운 기준, 스킨 롱제비티.

editor PARK SO EUN

노화의 흔적을 지우는 안티에이징이 오랫동안 뷰티 시장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분명히 다르다. 주름을 펴고 탄력을 끌어올리는 즉각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가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스킨 롱제비티는 시간을 거스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시간을 건디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피부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외부 자극, 산화 스트레스, 무너진 장벽과 회복 리듬의 불균형이 축적되며 서서히 구조를 흔든다. 그렇다면 해당 역시 표면의 보정이 아니라 피부 내부 환경의 안정화에 있다. 최근 글로벌 뷰티 시장이 향산화, 세포 에너지, 장벽 리페어, 재생 신호 같은 키워드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결국 핵심은 피부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스킨 롱제비티가 말하는 피부 관리의 방향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이오테크 기반의 연구 접근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랜 시간 식물 유래 성분과 피부 생명과학을 결합한 연구를 축적해왔고, 최근에는 세포 단위의 에너지 메커니즘과 피부 리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성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회복하는지의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설계하는 방식이다. 스킨 롱제비티는 더 강한 자극이나 더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컨디션, 지속적인 회복력,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피부 상태를 목표로 한다. 과시적인 변화 대신 구조적 밀도를 택하는 태도, 단기적 광채 대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설계하는 접근. 기술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기준은 점점 더 냉정해진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얼마나 달라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건디는가. 그리고 그 답을 과학적으로 축적해온 연구 역량이야말로 지금 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 된다.

photograph CHOI SEUNG HYUK





# REPROGRAMMING SKIN TIME

보이는 변화를 넘어, 피부 시간의 '작동 원리'를 다시 쓰다. editor PARK SO EUN

피부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축적되며 구조를 형성한다. 안티에이징이 변화를 약속했다면 스킨 롱제비티는 유지와 설계를 말한다. 얼마나 달라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그 기준은 표면이 아니라 피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피부를 하나의 생태 시스템으로 바라본다. 수분 유지력과 장벽의 안정성, 세포 반응성, 외부 환경 대응력, 그리고 생활 리듬까지. 피부 시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해석하고 재가동하며 구조적으로 보강하고 외부 변수로부터 지켜내는 다층적 접근.

그것이 리프로그래밍 스킨 타임이다. 피부 시간을 스킨케어 루틴에 한정하지 않고 이너 뷰티와 웰니스, 생활 습관과 연결해 삶의 리듬으로 확장하는 관점 역시 이 설계안에 포함된다. 리프로그래밍 스킨 타임은 단일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피부 시간을 읽고, 움직이고, 단단히 세우고, 안정화하고, 확장하는 체계적 알고리즘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축적해온 연구와 기술은 이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피부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피부 시간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접근. 그것이 지금 스킨 롱제비티가 제안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STEP 1

# DECODE

## 피부의 시간을 읽다

모든 설계는 해석에서 시작된다. 퍼스트 케어는 단순한 정돈 단계가 아니다. 세안 직후 피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현재의 컨디션과 리듬을 읽어내는 과정이다. 수분 유지력, 장벽 상태, 피로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다음 단계의 흡수 환경을 정비한다. 피부 시간을 '해독'하는 첫 단계. 이 단계가 정밀할수록 이후의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홀리추얼 피토 리juveney팅 컨센트레이트** 30ml 7만원.  
**헤라 시그니아 리파이닝 워터 에센스** 180ml 10만원.

## PRODUCT POINT

피토 리juveney팅 컨센트레이트는 식물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하며 탄력과 장벽을 함께 케어하는 워터리 제형의 에센스다.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항산화 케어를 통해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건강한 컨디션으로 가꿔준다. 헤라 시그니아 리파이닝 워터 에센스는 수분을 균일하게 공급하고 결을 정제하듯 정돈해 이후 단계의 흡수를 돕는 워터 에센스 제형이다. 두 제품은 피부의 현재 리듬을 정리하고, 스킨 루틴의 출발점을 만드는 퍼스트 케어로 기능한다.





AMORE PACIFIC

CLINICAL RESPONSE

Triple Shot Serum  
Sérum à triple action

STEP 2

# ACTIVATE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 5ml×20앰플 28만원.

## 피부 시간을 활성화하다

해석이 끝났다면, 이제 반응을 유도할 차례다. 고농축 앰플과 세럼은 세포 에너지와 회복 신호를 깨우는 중심축이다.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촉발한다. 밀도 높은 성분과 정교한 전달 기술이 피부 리듬을 재가동시키는 단계. 시간이 멈춘 듯 느려진 지점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정체돼 있던 반응을 풀어내고, 흐트러진 균형을 다시 맞춘다. 둔화된 에너지 흐름이 제자리를 찾고, 무뎠던 반응 속도가 점차 또렷해진다. 이 단계에서 피부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상태'로 전환된다.



## PRODUCT POINT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은 4주라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케어함으로써 피부 반응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앰플이다. 피부의 반응 속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체계적인 빌드업 구조를 채택해, 흩어진 피부 리듬을 4주라는 명확한 주기 안에서 재설계한다. 아모레퍼시픽의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은 고농축 기능성 성분을 정밀하게 전달해 피부의 회복 신호와 반응 속도를 자극하는 세럼이다. 피부 시간을 '가동시키는 핵심 단계'에 배치되며 드라마틱한 효과를 선사한다.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 40ml 11만5천원.



## REBUILD

## 피부 내구성을 쌓다

잘 설계된 외관도 철골과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균형은 표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결정된다. 피부 역시 마찬가지일 것. 에너지가 올라온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중심부가 탄탄해야 한다. 외부 자극이 반복되고 내적인 피부 컨디션이 요동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리빌드는 그 코어를 세우는 단계다. 탄력, 광채와 함께 장벽이 탄탄해진다면, 볼륨과 윤기 역시 더 이상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형태로 남는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다. 케어의 결과가 빠르게 소모되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고 쌓아 올린 에너지가 제자리를 오래 유지하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이다.



홀리추얼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  
140ml 10만5천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50ml 50만원.



## PRODUCT POINT

홀리추얼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은 피부 코어 탄력 강화에 포커싱한 제품이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흡수율 높은 저분자 콜라겐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 코어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골드 입자가 담긴 젤 타입 텍스처는 피부에 쫄쫄하게 밀착되어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며, 깊숙이 스며들어 탄탄한 피부 바탕을 완성한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은 장벽 안정성과 보습 지속력에 효과가 탁월하다. 수분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케어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 Barrier Stable

피부 장벽을 단단히 세우는 5가지 습관

## 1 세정 시간 줄이기

클렌징은 길수록 좋지 않다. 거품은 손에서 충분히 낸 뒤 짧게, 부드럽게. 마찰이 누적될수록 장벽은 얇아진다.

## 2 미온수 유지

뜨거운 물은 피지층을 과도하게 녹인다. 세안과 샤워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유지할 것. 작은 차이가 수분 손실을 줄인다.

## 3 건강한 턴오버 주기

과도한 필링은 장벽 손상을 야기한다. 피부결이 매끄럽지 않다고 즉각 제거하기보다, 재생 주기를 고려해 간격을 둘 것.

## 4 보습 '레이어링'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 가벼운 제형을 여러 겹 쌓는다. 수분층을 단계적으로 채우면 증발 속도가 느려진다.

## 5 급격한 제품 교체 피하기

새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 바꾸면 피부는 반응 경로를 잃는다. 하나씩 교체하며 적응 시간을 준다. 장벽은 안정성을 선호한다.





STEP 4

# STABILIZE

## 피부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다

아무리 세심하고 철저하게 케어해도 늘 변수가 존재하는 법. 특히, 봄철은 피부를 공격하는 요소가 많은 계절이다. 자외선, 미세먼지, 들쭉날쭉한 일교차는 피부의 시간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방법.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선택어. 여기에 안티폴루션 기능이 탑재된 제품은 외부 자극에 피부 환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 PRODUCT POINT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는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장벽 보호를 고려한 세라캡슐 기술을 적용한 선택어다.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는 자외선과 외부 유해 요인에 대응하는 멀티 보호 기능을 담아 피부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SPF50+ / PA++++ 50ml 4만7천원.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SPF50+ / PA++++ 40ml  
3만4천원.

## EXTEND



잠들기 전 한 포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다. 향과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이 없고, 루틴으로 이어가기 수월하다. 컨디션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감각에 가깝다.” 뷰티 에디터 박소은

### 피부 수명을 삶의 리듬으로 확장하다

피부 시간은 스킨케어 루틴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하루의 시작과 끝, 긴장과 이완의 간격,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까지 모두 피부에 반영된다. 수면과 스트레스, 생활의 템포는 곧 피부 컨디션의 기초가 된다. 이너 뷰티와 웰니스 라이프는 그 지점을 다룬다. 피부를 표면 관리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삶의 리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몸의 균형이 완만해질수록 피부의 반응도 안정된다. 급격히 끌어올리는 대신,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힘. 스킨 룩제비티는 결국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케어의 범위를 파우더룸과 파우치 밖으로 넓히는 순간, 피부의 시간은 삶의 시간과 보폭을 맞추며 더 오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 PRODUCT POINT

홀리추얼 미라클 타임은 신체 컨디션과 피부 균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너 뷰티에 중점을 둔 접근이다. 하루의 리듬 속에서 무너지기 쉬운 에너지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며, 컨디션의 회복을 완만히 조정해준다. 스킨유 딥오일 케어 샤워코롱은 샤워 타임을 단순 세정이 아닌 컨디션 리셋의 시간으로 확장하는 바디 케어 제품이다. 오일 베이스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며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되고, 건조함 없이 마무리된다. 피부 위에 남은 잔향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감각적인 웰니스 경험을 선사한다.



샤워 후 바디로션 대신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잔향이 길게 남는다. 오일 베이스라서 그런지 피부 위에 은은하게 머무는 느낌이 있다. 과하게 퍼지는 향수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를 정돈해주는 타입. 긴 하루 끝에 향으로 컨디션을 리셋하는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뷰티 에디터 이해리



홀리추얼 미라클 타임  
10g×20포 8만6천원.  
스킨유 딥 오일 케어 샤워코롱  
100ml 3만8천원.

model 장민영 makeup 김동현, 유수현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이슬아 styling 김송이



# Soft Neutrality

뉴트럴한 컬러로 재해석한 생동의 계절, 봄의 온기. editor PARK SO EUN

LOOK. 1

# Deep Muted Neutrals

1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SPF15/PA++ 30g 7만2천원. 2 헤라 퀘드 아이 컬러 #03 누디 토프 9g 6만9천원. 3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227 돌리피치 7.5g 4만7천원. 4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 섹슈얼 초콜릿 5g 4만5천원. 5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401 누디스트 5g 4만원.



**FACE**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얇게 밀착시켜 결을 정돈한다.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227 돌리피치를 광대뼈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 혈색과 입체감을 완성한다.

**EYES** 퀘드 아이 컬러 #03 누디 토프의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을 정돈하고, 중간 컬러로 깊이를 더한다. 가장 짙은 컬러는 눈꼬리와 언더라인에 더해 음영을 또렷하게 연출한다.

**LIPS**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섹슈얼 초콜릿을 얇게 펴 발라 차분한 로즈 톤 컬러를 완성한 후, 센슈얼 누드 글로스 #401 누디스트를 입술 라인을 살짝 오버해 얹어 볼륨감을 더한다.

요즘의 우아함은 드러내기보다 조율하는 데 있다. 선명한 색을 앞세우지 않아도, 피부의 결과 톤의 밀도만으로 인상은 충분히 또렷해진다. 채도를 낮춘 베이지와 소프트 브라운, 고급스러운 로즈 톤이 피부 위에 스며들 듯 겹쳐지며 대비 대신 그윽한 무드를 완성한다. 화려한 컬러 없이 완성되는 정교한 균형. 그 자체로도 조용한 기쁨이 드러난다.



### Key Point

#### 뮤트 톤 레이어링

중간 채도의 뉴트럴 컬러를 얇게 겹쳐 깊이를 쌓는다. 눈가는 브라운 음영으로 구조를 정돈하고, 치크와 립은 채도를 낮춘 로즈 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톤의 흐름을 유지한다. 경계는 흐리되, 윤곽은 흐트러지지 않게. 절제된 레이어가 고급스러운 인상을 완성한다.



LOOK. 2

# Luminous Coral Pink

투명한 피부 위로 번지듯 올라오는 코랄과 핑크의 온기. 건강한 윤기와 맑은 색감이 겹쳐지며 인상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얻는다. 아이는 과하게 힘주지 않고 브라운 음영으로 균형을 잡는다. 대신 립은 촉촉한 텍스처로 빛을 반사하며 한층 또렷한 존재감을 만든다. 맑은 피부, 정돈된 음영, 그리고 투명하게 빛나는 핑크 립. 봄의 온기를 세련되게 해석한 메이크업이다.



## Key Point

### 생기 중심 레이어

코랄과 핑크를 한 번에 올리지 않는다. 피부의 투명도를 먼저 확보한 뒤, 치크로 온기를 더하고 립으로 생기를 완성한다. 컬러는 탁해지지 않게, 은은한 윤기는 유지한 채, 번들거리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FACE** UV 프로텍터 톤업 피치로 피부 톤을 맑게 정돈한 뒤, 실기한 파운데이션으로 깔끔한 베이스를 완성한다.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187 로지를 양 볼 중앙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블렌딩해 맑은 혈색을 만든다.

**EYES** 퀴드 아이 컬러 #01 시에나 코랄의 브라운 컬러와 코랄 컬러를 레이어링해 유연한 음영을 더한다. 속눈썹은 리치 컬링 마스크라로 또렷하게 정돈하되, 컬러보다 구조에 집중한다.

**LIPS** 루즈 클래스시 #157 스프링 핑크로 입술에 쉼한 생기를 더한 후, 체리빛 컬러의 센슈얼 누드 글로스 #390 웨베리를 중앙에 덧발라 젤리처럼 탱글한 윤기를 완성한다. 광이 자연스럽게 반사되도록 두께를 조절한다.

1 헤라 퀴드 아이 컬러 #01 시에나 코랄 9g 6만9천원.

2 헤라 루즈 클래스시 #157 스프링 핑크 3.5g 5만원.

3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390 웨베리 5g 4만원.

4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피치 SPF50+/PA++++ 50ml 4만7천원.

5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187 로지 7.5g 4만7천원.

6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30g 7만원.





LOOK. 3

# Refined Lavender Statement

시선을 단번에 환기하는 다른 컬러를 선택하고 싶을 때, 라벤더는 그 선택지 중 가장 의외이면서도 세련된 답이 된다. 단, 방식이 중요하다. 선명하게 올려 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맑게 정돈된 피부 위에 섬세하게 레이어링해 조율하는 것. 봄 컬러에서 한 발 벗어나고 싶을 때, 라벤더는 충분히 대답하지만, 조율에 따라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 있다.

## Key Point

### 섬세한 라벤더 그레데이션

라벤더를 포인트로 쓰되, 피부와 립은 과하게 힘주지 않는다. 눈에 컬러를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정돈한다. 눈두덩을 중심으로 라벤더 그레데이션의 구조를 살리고, 경계는 남기지 않는다. 대담하지만 정제된 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photograph 어명환(model) 루루 makeup (model) 루루 makeup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이슬이 styling 김송이



- 1 헤라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422 라제리 7.5g 4만7천원.
- 2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 SPF50+/ PA++++ 50ml 4만7천원.
- 3 헤라 콰드 아이 컬러 #05 핑크 라일락 9g 6만9천원.
- 4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본품 15g+리필 15g 7만4천원.
- 5 헤라 루즈 클래식 #161 섹시넘버원 3.5g 5만원.
- 6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422 라제리 5g 4만원.



**FACE**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로 피부 톤을 맑게 정리한 뒤,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매끈한 베이스를 완성한다. 리플렉션 리퀴드 블러쉬 #422 라제리를 광대뼈 상단에 얇게 더해 쿨한 혈색만 은은하게 남긴다.

**EYES** 콰드 아이 컬러 #05 핑크 라일락을 눈두덩 전체에 넓게 블렌딩한다. 중앙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해 발색을 집중시키고, 양머리와 꼬리 방향으로 농도와 깊이를 더해 내추럴한 그레데이션을 완성한다.

**LIPS** 루즈 클래식 #161 섹시넘버원을 얇게 발라 누디하고 모던한 립 컬러를 완성한 후, 톤 다운된 쿨 핑크빛 센슈얼 누드 글로스 #422 라제리를 덧발라 글램한 운기를 더한다.



# Evolved Home Aesthetic

빛의 정교함으로 완성하는 메이크오의 진화된 홈 에스테틱. editor PARK SO EUN

## Onface LED Mask

### 면으로 설계된 빛, 균일하게 쌓이는 탄성의 리듬

온페이스 LED 마스크는 홈케어를 '붙이는 기기' 수준에 머물게 두지 않는다. 출발점은 빛의 세기보다 밀도다. 얼굴 곡선을 따라 빈틈없이 밀착되는 구조 안에 LED를 정교하게 배치해, 빛이 흩어지지 않고 피부에 고르게 닿도록 설계했다. 사용자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광 자극이 균일하게 전달되는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핵심은 파장이다. 가장 오랫동안 연구 및 검증되어온 과학적인 파장인 630nm의 레드 오렌지를 중심으로 피부 탄력과 밀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Allrounder  
LED Mask

94%  
피부 탄성 복원력

42.5%  
모공 부피

97%  
미백 회복률<sup>1)</sup>

11%  
동안 입술<sup>2)</sup>

8.3배  
안구 충혈 스코어  
개선<sup>3)</sup>

피부 컨디션에 따라 9분 또는 15분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빛은 표면에서 반짝이는 효과를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피부 깊은층의 반응을 유도하는 에너지다. 자극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일정한 강도로 반복해, 누적되는 변화를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다. 온페이스 LED 마스크는 '손을 대지 않는 케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 마찰이나 압력 없이 빛만으로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다. 짧은 시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구조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루틴을 유지하기 쉽다. 홈 에스테틱이 일상과 충돌하지 않고 스며드는 지점이다. 이 기기는 단순히 피부를 밝히거나 탄력을 끌어올리는 목적을 넘어선다. 630nm의 파장 에너지를 통해 피부 본연의 컨디션을 회복해, 매일의 스킨케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인 피부 밀도 관리에 초점을 둔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반복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 온페이스 LED 마스크는 집 안에서 전문가의 프로토콜을 압축해 구현한 장치에 가깝다.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가 진단과 맞춤 자극을 통해 '방향'을 설정한다면, 온페이스 LED 마스크는 균일한 빛 자극으로 '지속'을 만든다. 메이크온이 제안하는 프리미엄 홈 에스테틱은 감각에 의존하는 관리가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루틴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메이크온 온페이스 LED 마스크 1백89만9천원.

•메이크온 온페이스 LED 마스크  
하루 9분, 일주일 3번, 8주 사용 후 결과  
시험 기간: 2024년 3월 11일~2024년  
5월 9일 | 시험 대상: 만 35~55세의  
성인 여성 33명 | 시험 기관: 피엔케이  
피부임상연구센터

1) UVB 대조군(100%) 대비, 제품 적용군(온페이스 LED 마스크) 15분 + 미백기능성화장품 도포 후 5일 동안 하루 1회 사용 후 결과(인체피부조직 EX-VIVO Model Test) 2) 메이크온 온페이스 LED 마스크 하루 1번, 1회 15분, 일주일 5번, 8주 사용 후 결과 | 시험 기간: 2025년 9월 29일~2025년 10월 31일 | 시험 대상: 만 35~55세의 성인 여성 33명 | 시험 기관: 피엔케이 피부임상연구센터 3) 시험 기간: 2025년 12월 1일~2025년 12월 29일 | 주 5회 이상 총 4주 동안 메이크온 온페이스 LED 마스크 하루 1번, 1회 15분 사용 후 결과 | 시험 기관: (주)엘리트 | 평균 연령 41.6세의 여성 32명(26~50세)

# Skin Light Therapy 3S



메이크온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47만5천원.

## 피부를 읽는 3초, 그날의 루틴은 그 순간 결정된다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는 단순한 자극의 강도를 넘어, 피부와의 정교한 교감을 지향한다. 이 기기의 핵심은 피부에 접촉하는 순간, 3초 안에 현재 피부 상태를 정밀 분석해 그날에 가장 필요한 맞춤형 케어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수분, 탄력, 톤의 밸런스를 즉각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루틴을 설정하는 스마트한 구조를 갖췄다. 핵심 기술인 EP는 피부 장벽에 일시적인 통로를 형성해 스킨케어 성분의 전달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바른 성분이 머무르는 표면을 넘어 작동 범위를 확장한다. 여기에 LED 광에너지와 미세전류가 더해지며 복합적인 반응을 설계한다.

LED는 피부 컨디션에 맞는 빛 에너지를 균일하게 전달하고, EMS는 피부 속 근육까지 미세하게 자극해 탄력 구조를 정돈한다. 각 기술이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 조합되는 구조다. 부스팅 모드는 빠르게 활력을 끌어올리고, 더블 토닝 모드는 칙칙한 톤과 결을 동시에 정돈하며, 릴렉싱 업 모드는 예민해진 피부를 차분히 안정시킨다. 각각은 강도 차이가 아니라 자극의 조합과 작동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스페셜 모드가 더해지며 기기의 성격은 한층 확장된다.

콜라겐을 생성\*하고 윤곽을 정돈하는 컨투어링 모드는 EMS 작용을 강화해 탄력감을 끌어올린다. 소프트 레티놀 모드는 EP 기반 전달 구조를 활용해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흡수되게 돕는다. 고기능 성분을 활용하는 스킨케어 루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다.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는 홈케어를 '짧고 간편한 관리'로 축소하지 않는다. 진단으로 방향을 정하고, EP, LED, EMS를 조합해 맞춤 자극을 설계하며, 성분의 전달 효율까지 고려하는 구조. 데이터에서 시작해 루틴으로 완성되는 프리미엄 홈 에스테틱의 방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

\*UVA처리 대조군 5.8% / 아이오페 스텔3 세럼 & 디바이스 사용 37.919%  
[인체 피부 조직 EX-VIVO Model Test]

###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 Point 1

##### 넓은 헤드 면적

넓은 헤드 면적으로 얼굴 윤곽부터 볼까지, 한 번에 넓게 감싸며 균일하게 케어한다.

#### Point 2

##### 미니멀한 디자인

한 손에 들어오는 최적의 그립감으로 불편함 없이 굴곡진 부위도 정교한 케어가 가능하다.

#### Point 3

##### 초경량 디바이스

단, 105g 무게의 초경량 디바이스로 손목 부담 없이 편안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 Point 4

##### 원 버튼 시스템

버튼 하나로 다양한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사용법이 간편하다.



PRODUCT FOCUS



# For Real Brightening

밝아지는 순간보다, 다시 짙어지지 않는 흐름을 설계할 때 진정한 브라이팅은 완성된다. editor PARK SO EUN

## 자정 브라이팅 4스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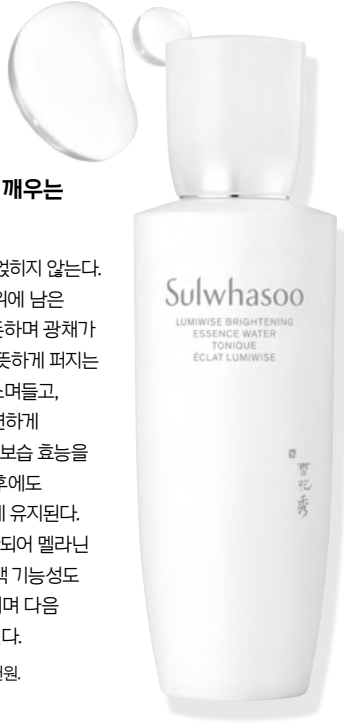
한순간이 아닌 한결같이 이어지는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

### STEP 1

#### 피부의 숨겨진 광채를 깨우는 자정수

맑음은 두꺼운 각질 위에 얹히지 않는다. 자정수는 세안 직후 피부 위에 남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하며 광채가 드러날 자리를 만든다. 산뜻하게 퍼지는 워터드롭 제형이 가볍게 스며들고, 진생 PHA™가 각질을 유연하게 케어한다. 일반 PHA 대비 보습 효능을 고려한 포몰러로, 정돈 이후에도 피부는 팽김 없이 촉촉하게 유지된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포함되어 멜라닌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기능성도 갖췄다. 피부결이 매끈해지며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설화수 자정수 150ml 9만2천원.



### STEP 2

#### 투명 광채 환경을 조성하는 자정유액

광채는 수분 환경이 안정될 때 더 또렷해진다. 자정유액은 부드럽고 실키하게 퍼지며 피부결을 정돈하고, 끈적임 없이 흡수된다. 진생다당체와 비타민 A, C, E를 결합한 진생 A.C.E.™는 장벽과 피지 환경 변화로 연약해지기 쉬운 피부를 고려해 설계된 독자 원료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포함돼 거뭇해 보이는 흔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맞춰 많은 톤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촉촉하지만 무겁지 않은 마무리가 특징이다.

\*색소 침착 등의 흔적

설화수 자정유액 125ml 9만8천원.



### STEP 3

#### 다시 짙어지지 않는 톤을 설계하는 자정앰플세럼

브라이팅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자정앰플세럼은 적당한 정도의 농밀한 텍스처가 피부에 밀도 있게 스며들며 속부터 차오르는 듯한 윤기를 남긴다. 설화수 독자 원료 진생엑토티™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결합해 멜라닌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기능성을 갖췄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단독과 비교해 in-vitro 수분 장벽 측정 기준에서 투명 광채 수치가 4.17배 높게 나타났다는 데이터도 제시된다. 단기간 밝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짙어지지 않는 피부 흐름을 설계하는 중심 단계다.

설화수 자정앰플세럼 30ml 15만원.



### STEP 4

#### 흔적\*을 정밀하게 다듬는 자정기미코렉터

전체 톤이 정돈된 뒤에도 색은 특정 부위에 남는다. 부드럽게 펴 발리는 크림 제형이 피부에 얇게 밀착되며 눈가와 광대뼈, 입가처럼 흔적\*이 뚜렷해지기 쉬운 부위를 집중 케어한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멜라솔브™는 과다 생성된 멜라닌 분해와 노화 색소 축적 억제를 돕는다. 여기에 백삼사포닌™과 루미퀴논™이 더해져 브라이팅과 항산화 케어를 함께 설계했다. 전체를 밝히기보다 남아 있는 색의 밀도를 낮추는 접근이다.

\*색소 침착 등의 흔적

설화수 자정기미코렉터 30ml 15만원.



## 4주 브라이트닝 커리큘럼

시간을 따라 달라지는 피부, 4주로 완성되는 백옥 같은 피부

브라이트닝은 늘 색의 문제로만 다뤄진다. 하지만 피부가 얇아 보이고 힘이 떨어지면, 아무리 톤이 올라가도 인상은 흐릿해진다.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밝기를 끌어올리기보다, 먼저 피부의 밀도를 채우는 접근이다. 5mL씩 개별 포장된 앰플을 4주 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형 루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반 병으로 부담을 낮추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 한 병으로 밀도를 끌어올린다. 강약을 나눈 리듬이 누적되며 피부 컨디션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은 이 시간 설계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성분 역시, 백옥 앰플이라 불릴 만큼 탄탄하다.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기반으로 톤을 균일하게 정돈하고,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유도체, 비타민 E를 포함한 3종 항산화 콤플렉스로 맑음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붙든다. 여기에 화이트 플라워를 기반으로 한 성분이 더해지며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더한다. 밝기를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맑아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정비하는 셈이다. 홀리추얼의 브라이트닝은 색을 덜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빛을 드러내는 방식에 가깝다. 4주라는 시간은 반짝임이 아니라 컨디션을 다시 세우는 최소 단위다.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앰플 4주 프로그램 5ml×20앰플 28만원.



### Point 1

#### 실키 텍스처

가볍게 밀착되며 피부결을 따라 고르게 스며든다.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결이 정돈되며 또렷해지는 윤기를 남기는 마무리.

### Point 2

#### 밀도 중심 브라이트닝 전략

밝기를 엮은 대신 피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접근. 미백 기능성과 3종 항산화 콤플렉스, 화이트 플라워 복합 성분이 맑음이 쉽게 흐려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다.

### Point 3

#### 4주 집중 프로그램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반 병씩,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 한 병씩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오래된 기미 검고 깊은 3년 이상 된 기미

시험 대상: 만 30~59세 성인 여성 30명 인체적용 시험 결과

시험 기간: 2023년 9월 11일~10월 18일 | 시험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사용 48시간 후

피부결, 윤기,  
수분량 개선

사용 1주 후

피부 트립톤  
(균일도, 노란 기, 밝기),  
투명도, 피부 장벽 개선

사용 2주 후

겉 기미,  
겉 탄력 개선

사용 3주 후

멜라닌, 속 탄력,  
피부 치밀도 개선

사용 4주 후

속 기미, 오래된 기미\*  
눈가/팔자/이마 주름 개선



HOLITUA

Redefining Ampoule

5 ml

HOLITUA

Redefining Ampoule

5 ml

5 ml  
Redefining Ampoule

PRODUCT FOCUS



# Hydration for Skin Longevity

피부가 마르는 순간 장벽은 느슨해지고, 탄력은 조용히 내려앉는다. 피부 수명의 열쇠는 결국 오래 머무는 수분 위에서 결정된다. 보습은 겉을 적시는 일이 아니라, 피부 시간을 천천히 붙드는 일.

editor PARK SO EUN

보습에서 시작되는 유려한 광채와 탄탄한 밀도  
홀리추얼의 홀리스틱 보습 전략



## 피부 환경을 재정비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수분이 들쭉날쭉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피부의 균형이다.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는 이 출발선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스킨케어의 첫 단계에 사용하는 퍼스트 에센스로, 피부에 가볍게 스며들며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정돈하고 장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다진다. 단순히 겉만 적시는 보습을 넘어, 다음 단계 제품이 온전히 머물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한다.

홀리추얼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150ml 5만2천원.



## 온천을 다녀온 듯 매끈하고 유연한 스무딩 케어,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로션 단계는 단순히 수분을 더하는 과정을 넘어 피부의 기초 체력을 채우는 구간이다.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은 황 성분을 더해 외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피부 컨디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유연하게 밀착되는 텍스처는 거칠어진 피부결을 부드럽게 정돈한다. 촉촉함은 남기되 답답함 없는 산뜻한 마무리.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받쳐주는 보습 설계다.

홀리추얼 엘리멘탈 스무딩 로션 110ml 5만5천원.



## 피부 온도는 낮추고 탄력은 끌어올리는 보습 전략, 컨센트레이트 시그니처 크림 라이트

크림 단계에 이르러서야 스킨케어의 밀도가 완성된다. 컨센트레이트 시그니처 크림 라이트는 가볍지만 풍부한 텍스처로 피부에 녹아들며 보습과 영양을 채운다. 바다 에너지를 담은 포물러가 피부에 활력을 채우고, 열감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피부를 정돈한다. 무게로 누르는 보습이 아니라, 섬세하게 잠그는 방식. 수분을 오래 붙잡음으로써 또렷하고 탄력 있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레이어다.

홀리추얼 컨센트레이트 시그니처 크림 라이트 80ml 9만8천원.



# Elasticity for Skin Longevity

수분이 바탕을 만든다면, 탄력은 그 위에 세워지는 구조다. 충분히 적셔진 피부에서야 비로소 끌어올릴 수 있는 힘. 탄력은 역지로 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꺼지지 않도록 받쳐두는 밀도에 가깝다. 매일의 루틴이 기반을 다진다면, 집중 케어는 그 구조를 또렷하게 고정하는 단계. editor **PARK SO EUN**

## 피부 속 잠들어 있는 탄성을 깨우는 프리메라 젤 마스크

### 밀도를 끌어올리는 프리메라의 탄력 리셋

이 젤 마스크는 피부 위에 한 겹을 덧입히는 보습팩과는 결이 다르다. 얼굴에 빈틈없이 밀착되는 젤 제형이 유효 성분을 오래 붙들고, 저분자 콜라겐과 레티놀을 중심으로 처진 인상을 정돈한다. 마스크를 떼어낸 뒤 남는 것은 번들거림이 아닌, 단단하게 정리된 표면. 안쪽이 채워진 듯 결이 매끄럽게 다듬어지고, 윤곽이 자연스럽게 또렷해진다. 수분으로 다져둔 기반 위에 탄력의 구조를 더하는 순간, 그 역할이 분명해진다.



프리메라 레티콜라겐 앰플 메가샷 젤 마스크 7매 4만9천원.

### Point 1

#### 콜라겐과 레티놀의 밀도 시너지

저분자 콜라겐과 레티놀을 함께 담아 탄력의 중심을 세운다. 촉촉함에 머무르지 않고, 흐트러진 결을 탄탄하게 정리한다.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동시에 안쪽 밀도를 채워 올린다. 결이 고르게 정돈되며 인상이 또렷해진다.

### Point 2

#### 한 번으로 정리되는 또렷한 인상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피부가 쫘뼛하게 정돈된 느낌을 남긴다. 과하게 땅긴 긴장감 대신, 결이 균일해지며 윤곽이 자연스럽게 또렷해지는 흐름. 중요한 일정 전, 얼굴선을 빠르게 정리하기에 충분하다.

### Poin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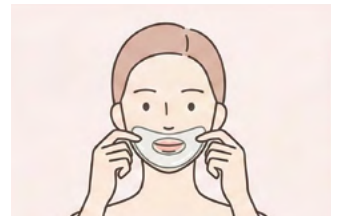
#### 앰플을 품은 결의 밀착력

34g의 탄력 앰플을 그대로 담은 젤 시트가 얼굴에 빈틈없이 밀착된다. 유효 성분이 피부 위에 오래 머물며 서서히 스며들고, 떼어낸 뒤에는 번들거림 대신 매끈한 표면이 남는다. 가볍지만 영양감은 충분히 느껴진다.

### 젤 마스크 사용 TIP



1 기본 스킨케어를 크림 단계까지 완료 후 사용한다.



2 파우치 개봉 후 필름을 제거하고 젤 마스크 하단을 입 중심으로 부착한다.



3 젤 마스크 상단은 눈 중심으로 들뜸 없이 부착한다.



4 1시간 후 마스크가 투명해지면 떼어낸다.

\*최대 8시간까지, 피부 컨디션에 맞게 사용 가능하다.

PRODUCT SPOT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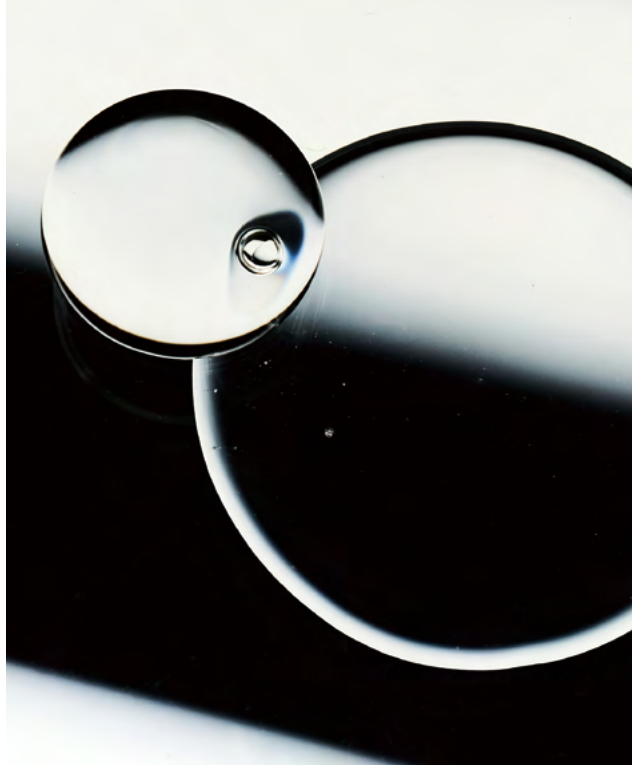
# Clinical Response,



고기능을 넘어, 피부가 깊이 반응하는 방식까지 계산한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퍼포먼스.

editor PARK SO EUN

# High Performance



## The Architecture of Performance

성분을 넘어, 전달과 축적까지 계산하는 아모레퍼시픽 기술력의 집약체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주자, 클리니컬 레스폰스 라인은 고기능 스킨케어의 방향을 다르게 짚는다. 더 강한 성분을 쌓기보다 피부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한다.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축적되는지까지 계산해 완성된 시스템이다. 이 라인의 중심에는 히알루론산과 PDRN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히알루론산은 단순한 보습 성분과 결이 다르다. 아모레퍼시픽은 가교 개념을 응용해 초미세화한 히알루론산을 독자적으로 구현했고, 분자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 피부 깊은 층까지 도달하도록 했다. 도달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체류 시간을 끌어올린 점이 핵심이다. PDRN 역시 4단계 정제 과정을 거친 고순도, 저분자 형태로 다듬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단순한 재생 신호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 사용 속에서 탄력과 치밀도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토너와 플루이드는 피부 환경을 정돈해 반응이 시작될 조건을 만들고, 세럼은 그 흐름을 끌어올리며, 크림은 그 결과를 붙잡는다.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깊이 도달하고 오래 유지되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순간적인 팽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밀도, 겉을 당겨 만드는 긴장감이 아니라 안에서 받쳐 올리는 힘. 아모레퍼시픽이 축적해온 전달 기술과 정제 공정, 그리고 분자 단위의 정밀 조절이 이 라인에 응축돼 있다. 단순 고함량을 넘어선 기술의 집약이며, 반복될수록 분명해지는 반응이 이 시스템의 본질이다. 고기능성 케어에 일가견이 있는 뷰티 전문가 역시 클리니컬 레스폰스 라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 Booster Shot Toner

### 반응을 여는 정밀 프라이밍

물처럼 가볍게 스며들지만 존재감은 분명하다. 히알루론산과 PDRN을 기반으로 액토인을 더해 외부 자극으로 흔들린 피부 환경을 빠르게 정돈한다. 피부결이 정리되고 수분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리며, 다음 단계 성분이 깊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단순한 피부 정리를 넘어, 반응을 받아들이는 피부의 기반을 만든다.

**NEW**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부스터 샷 토너 130ml 6만5천원.



## Booster Shot Fluid

### 밀도가 스며드는 유연한 흐름

유연하게 밀착되는 제형이 피부에 고르게 퍼지며 수분 밀도를 끌어올린다. 히알루론산과 PDRN을 축으로 올레오솜을 더해 수분 유지력과 장벽 밀도를 동시에 강화한다. 표면은 매끈해지고, 속은 빈틈없이 채워진 느낌을 남긴다. 토너가 길을 열었다면, 플루이드는 그 위에 밀도를 엮는다.

**NEW**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부스터 샷 플루이드 130ml 7만원.

## Triple Shot Serum

### 반응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코어

이 라인의 중심에 놓인 세럼. AP 단독 고침투 히알루론산과 4단계 정제 고순도, 저분자 PDRN을 기반으로 글루타치온을 더해 피부 톤과 밀도 반응을 함께 끌어올린다. 바르는 순간 차분하게 정돈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변한다. 겉을 부풀리는 인상이 아니라 깊은 층에서 유려한 광채와 탄력이 차오르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NEW**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 40ml 11만5천원.





photograph YEO MYOUNG HWAN(인물), CHOI SEUNG HYUK(제품)

## Triple Shot Cream

### 결과를 고정하는 케어의 피날레

세럼 단계에서 형성된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클리니컬 레스폰스 라인의 피날레 역할을 독특히 해내는 트리플 샷 크림. AP 단독 히알루론산과 고순도 PDRN을 기반으로 엑소솜을 더해 리페어 신호를 지속시키고 탄력의 균형을 잡는다. 피부 위를 덮기보다 안쪽 밀도를 단단히 붙잡는 텍스처가 특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윤곽이 또렷해지고 표면이 정돈된 느낌을 선사한다.

**NEW** 아모레퍼시픽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크림 50ml 13만5천원.

# Skin Expert Review

피부에 일가견이 있는 스킨 엑스퍼트들이 바라본 클리니컬 레스폰스.

editor PARK SO EUN





@olivesoot



**#물광탄력꿀템 #컨디션회복듀오**

“전직 10년 피부과 상담실장의 물광 피부 꿀템은? 아모레퍼시픽의 신제품 클리니컬 레스폰스 라인! 며칠만 사용해도 스킨부스터를 받았을 때처럼 피부 깊숙한 곳부터 우려한 광채가 올라와요.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은 피부에 닿자마자 쫘뽀하게 달라붙어 땅김 없이 깊은 보습감을 더하고,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크림은 영양감 있는 텍스처가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을 줘요!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니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느낌!”

**#세럼크림레이어링 #클리니컬레스폰스**

“피부과에서 근무하며 가장 많이 확인한 건, 탄력은 결국 기본 베이스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홈케어에서도 베이스 컨디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고침투 히알루론산과 고순도 PDRN을 담은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은 겉도는 보습이 아닌, 밀도 있게 채워지는 사용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럼 후, 크림까지 레이어링했을 때 수분을 가두듯 마무리돼 피부결이 한층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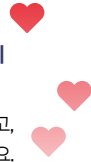


@janeumkim

**#홈에스테틱케어 #세럼크림시너지**

“저는 화장품의 효능을 살펴볼 때, 먼저 성분이나 제형을 유심히 보는 편이고, 기초 제품은 더 신중히 고르게 되더라고요.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고함량 담겨 있어 피부가 촉촉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크림은 세럼에서 올라온 수분감을 잡아주는 느낌이라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두 제품을 꾸준히 바르다 보니 물광 효과는 물론, 피부 속부터 쫘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true\_sister85



@dksdb\_



**#속광세럼 #리페어꿀판왕**

“시술받으러 갈 시간도 정신도 없는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클리니컬 레스폰스 트리플 샷 세럼 & 크림 조합. 세럼은 가볍지 않은 제형으로 피부 속 깊이 수분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다음 스템으로 크림을 발라주면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고, 다음 날 보면, 스킨부스터 시술 후 느껴지는 은은한 속광이 올라와서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에 정말 최적의 크림이에요.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고침투 히알루론산과 순도 높은 PDRN 성분이 담겨 있어 수분과 탄력, 리페어까지 챙겨주는 제품이에요.”

**#스페셜케어루틴 #피부장벽케어**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피부는 시술만큼이나 평소 홈케어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피부 컨디션 들쭉날쭉할 때는 더욱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클리니컬 레스폰스 라인인 고순도 PDRN과 고농축 히알루론산을 담아 피부 장벽 케어와 컨디션 조절에 도움을 줘요. 특히, 세럼에서 크림으로 이어지는 케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느낌! 피부는 꾸준한 관리가 답이어서, 요즘 가장 애정하는 홈케어 조합이에요!”



@sunmi.hanbok



## 봄철 불청객에 대응하는 현명한 클렌징 공식

환절기 피부 컨디션은 끌어올리고  
자극은 최소화하는 클렌징 루틴.

editor PARK SO EUN

# Skin Refresh Foam Cleanser

봄의 피부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미세먼지, 꽃가루, 자외선 잔여물이 겹겹이 쌓이며 작은 손상을 축적한다. 문제는 이 변화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자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는 분명 반응한다. 이 시기의 클렌징은 '강한 세정'이 아니라 '정확한 제거'에 가깝다. 헤라의 클렌징 폼은 촘촘한 미세 거품으로 표면을 고르게 정돈하며 세안 후 땅김 없이 마무리된다. 남겨야 할 수분은 지키고, 쌓인 흔적만 덜어내는 균형. 봄철 피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면, 공기처럼 가벼운 미세 거품이 피부를 감싼다. 3-AHA 콤플렉스와 셀룰로오스 비드가 각질과 잔여물을 정돈해 매끈한 결을 남기고, 세안 후에는 산뜻한 촉촉함이 이어진다. 유분을 과하게 걸러내지 않으면서도 개운한 인상을 남기는 타입. 오후까지 번들거림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을 때 적합하다.

헤라 리프레싱 클렌징 폼 160g 3만5천원.

1

## 맑고 환한 안색을 가꿔주는 스킨케어링 효과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3-AHA COMPLEX와 셀룰로오스 비드가 만나 피부 위 불필요한 불순물을 깔끔하게 씻어내 매끈하고 투명한 피부를 완성한다.

2

부드러운 물렁감으로 완성하는 저자극 세안  
소량만으로도 촘촘하고 풍성한 거품이 생성돼 피부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자극 없이 순하게 제거한다.

3

세안 후에도 땅김 없는 보습감  
오일리함 없이 산뜻한 마무리를 선사하며, 보습에 탁월한 성분을 담아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 Cleansing Tip

### STEP 1

미온수로 얼굴을 가볍게 헹군 후, 클렌징 폼을 손에 소량 덜어내 거품을 낸다.

### STEP 2

손으로 거품을 만들며, 핑크빛 셀룰로오스 비드를 깨 믹스한다.

### STEP 3

미온수로 얼굴을 충분히 헹군 다음 찬물로 마무리한다.

# Oil to Foam Perfect Cleansing

자극이 덜하면서도 개운한 세안제를 찾게 되는 봄철. 가벼운 세안은 진한 메이크업과 얼굴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하기 어렵고, 지나친 2중 세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프리메라의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은 제품명 그대로 순하면서 강한 세정이 가능한 원스텝 클렌저다. 오일의 부드러움으로 시작해 거품의 산뜻함으로 이어지는 전환형 클렌저로 선크림과 포인트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유화하고, 물이 닿으면 촘촘한 거품으로 변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세정한다. 단계를 나누지 않아도 완벽한 세안을 도와주는 간결함이 장점. 세안 후에도 피부가 땅기지 않고, 촉촉함이 은근히 남는다. 무엇보다 장벽 케어 성분이 함유돼 있어 봄처럼 피부가 예민한 시기에 피부 컨디션을 지켜주는 퍼펙트 클렌저로 제격이다.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 200ml 2만6천원.

1

## 2 in 1 원스텝 클렌징

오일 투 폼 텍스처로 선크림,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 미세먼지까지 원스텝 클렌징을 선사한다.

2

## 산뜻하고 청량한 피니시 모공을 막지 않는 오일

텍스처가 유분기를 유화해 말끔히 지워내고, 사용감이 산뜻해 트러블성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3

## 모공 딥 클렌징

피부 위 잔여물뿐 아니라 모공 속 노폐물과 블랙헤드, 피지를 정돈해 매끈한 피부결을 완성한다.



## Basic Cleansing Guide



### 거품은 손에서 만들기

클렌저를 얼굴 위에서 바로 문지르기보다, 손을 깨끗이 세정한 다음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 피부에 올린다.

### 간결한 세안 시간

오래 문지른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은 아닐 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30~40초가 적당하다.

### 가벼운 아침 세안

밤사이 분비된 피지와 스킨케어 잔여물만 정리하는 정도의 가벼운 세안이면 충분하다.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라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 섬세한 저녁 세안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은 물만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럴 땐, 오일로 유분기를 유화시킨 후 가벼운 폼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단, 짧고 부드럽게.

### 즉각적인 보습 충전

세안 직후의 보습 케어가 피부 장벽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피부가 메마르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분 충전이 필요하다.



*Cleansing Tip*

**STEP 1**

손을 깨끗이 세정한 후 물기 없는 양 볼과 이마에 부드럽게 롤링해 메이크업을 녹여준다.

**STEP 2**

손에 물을 묻혀 거품을 생성하며, 모공 속까지 개운하게 2차 세안을 마무리한다.

**STEP 3**

미온수로 얼굴에 남은 잔여물과 거품을 깔끔하게 씻어낸다.

# INSIDE-OUT Balance

컨디션은 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editor PARK SO EUN



VITAL BEAUTIE  
슈퍼콜라겐  
250 ml

피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공동개발  
Gly-Pro-Myp 30 mg  
N-아세틸글루코사민 500 mg  
MSM 3 mg  
MSM 200 mg  
15 mg/회

VITAL BEAUTIE  
올인원멀티팩  
복합비타민이네랄  
혈액 순진

건강기능식품  
1.995 g  
(535 mg X 1정) + (730 mg X 2정)

건강  
기능식품  
LAB  
PROVEN

VITAL BEAUTIE  
올인원멀티팩  
복합 기능성  
높은 혈압·혈행·노화케어

건강  
기능식품  
LAB  
PROVEN

건강기능식품  
1.36 g  
(500 mg X 1캡슐) + (430 mg X 2캡슐)

# VITAL BEAUTIE

컨디션은 겉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수면의 깊이, 식사의 균형, 에너지의 회복 속도처럼 보이지 않는 리듬이 어긋날 때 변화는 천천히 축적된다. 우리는 흔히 표면을 먼저 정돈하려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안에서 다져진 기반이다. 이너 루틴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 가깝다. 반복되는 관리가 쌓이고, 그 축적이 어느 순간 일상의 밀도를 바꾼다.



## 슈퍼콜라겐 골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콜라겐을 보충하는 능력은 점차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연골, 관절 질환의 경우 많이 쓸수록 고장 나기 쉬워 노년기에 많이 발생한다. 슈퍼콜라겐 골드는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및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망간이 함유된 흡수 빠른 저분자 콜라겐 제품으로, 피부 보습은 물론 뼈, 관절, 연골 기능성을 함께 갖춘 제품이다. 여기에 나이아신과 비오틴을 더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골드 25ml×30캡슐 14만원.



“피부뿐 아니라 뼈, 관절, 연골 건강까지 한번에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 거부감 없는 맛으로 섭취가 간편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피부가 걱정하신 분은 물론, 집안일, 회사 업무로 손목과 어깨 관절이 걱정되시는 분께도 추천한다.” 뷰티 브랜드 마케터 이주현

## 올인원 멀티팩

영양 관리는 중요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올인원 멀티팩은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8종을 정제로 담고, 기능성 원료는 캡슐로 분리해 구성한 1일 복합 패키지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행 개선 기능성을,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은 눈 건강 기능성을, 코엔자임Q10은 높은 혈압 감소 및 항산화 기능성을 갖췄다.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제와 캡슐에 나눠 담았다. 파우치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여 누락 및 중복 없이 섭취 가능하다. 여러 제품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간결함이 결국 지속을 만든다. 중장년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은 더하고 부족한 성분은 채워 영양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탈뷰티 올인원 멀티팩 60일 1제(1.995g×60포)+2제(1.36g×60포) 27만원.



“부모님께 선물했는데,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이고, 눈, 혈압 및 혈행 건강까지 한번에 챙길 수 있어 간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체 변화와 함께 노화가 시작되는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와 기능 성분이 함유되어 만족스럽습니다.” 뷰티 에디터 박소은

# Scalp First

피부보다 계절을 먼저 알아차리는  
두피를 위한 체크리스트.

editor PARK SO EUN



피부가 계절을 드러낸다면, 두피는 그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한다. 봄별은 부드러워 보여도 자외선은 이미 높아지고, 일교차와 미세먼지가 겹치면서 두피는 생각보다 쉽게 예민해진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지만 두피는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그 차이는 볼륨에서 먼저 드러난다. 가르마가 유독 넓어 보이고, 뿌리가 힘없이 가라앉으며, 스타일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단순한 헤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피 환경의 변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피의 탄력과 유·수분 균형도 달라진다. 뿌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모발은 쉽게 눕고, 드라이로 올린 볼륨도 금세 사라진다. 반대로 뿌리가

단단하면 전체 실루엣이 살아난다. 볼륨은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정돈된 뿌리는 자연스럽게 여유를 만들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하다. 러 루트젠 안티에이징 3D 볼륨 에센스는 그 기반을 다루는 제품이다. 두피에 직접 도포해 가볍게 흡수시키는 타입으로, 끈적임 없이 밀착된다. 스타일링 제품처럼 곁에 남기보다 두피 환경을 정리해 뿌리의 지지력을 보완하는 방식. 덧씌우는 볼륨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는 볼륨에 가깝다. 메이크업에서 베이스를 먼저 다지듯, 헤어 역시 순서를 바꿔볼 때다. 모발보다 앞서, 두피부터.

두피 탄력과 모발 볼륨을 동시에 고려한 포뮬러로, 뿌리부터 힘 있게 연출되는 3D 볼륨감을 완성한다. 스타일링 직전에 사용해도 부담 없는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며, 데일리 헤어 케어 루틴으로 연결하기 좋은 제품.

**려** 루트젠 안티에이징 3D 볼륨 에센스 80ml 2만3천원.



## Check List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보자.

- 가르마가 예전보다 넓어 보인다.
- 오후가 되면 정수리 볼륨이 눈에 띄게 꺼진다.
- 두피가 쉽게 땅기거나 건조한 느낌이 든다.
- 샴푸 후에도 두피가 개운하지 않다.
- 계절이 바뀌면 유독 두피 트러블이 올라온다.
- 모발이 가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 헤어라인이 예전보다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
- 두피에 열감이 자주 느껴진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모발이 자라나는 환경인 두피 컨디션부터 점검할 시점이다.

LIFE SUNCARE

# Sun Defense Strategy

봄은 가장 눈부신 계절이지만, 자외선은 가장 집요하다. 화사하게 번지는 빛 뒤에서 피부를 조용히 압박하는 계절. 선크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피부를 대하는 방식이다. editor PARK SO EUN



## Sulwhasoo

for. 야외 활동이 잦은 라이프

봄 햇살은 부드러워 보여도, 필드 위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상백선플루이드는 움직임이 많은 하루를 전제로 한 선케어다. 땀과 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효과로 활동적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에 얇게 밀착돼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적고,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된다. 차단을 넘어 지속력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설화수** 상백선플루이드 SPF50+/PA+++ 50ml 6만원.

## HERA

for. 노랗고 칙칙한 피부 톤

봄의 선케어는 더 이상 차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라벤더 컬러가 노란 기를 자연스럽게 중화해 칙칙하게 가라앉은 피부 톤을 맑게 정리한다. 과하게 하얘지는 보정이 아니라, 얇고 투명하게 밀착되는 방식.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 베이스 전 단계로 활용하기 좋다. 보호와 톤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날에 특히 빛을 발한다.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 SPF50+/PA++++ 50ml 4만7천원.

# The Taste Makers

아모레퍼시픽 본사 지하, 아모레 애비뉴에는 특별한 미식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왓어샐러드와 컨플릭트스토어가 그 주인공. 뷰티 업계 선두에서 트렌드를 이끌어온 아모레퍼시픽처럼, 각자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고민해온 두 브랜드에 주목해봤다.

editor KWON SAE BOM



## 컨플릭트스토어 *Conflict Store*

원두 편집매장부터 커피 오마카세에 이르기까지. 외식 업계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빠른 카페 신에서 유독 과감한 시도를 이어가는 곳. 바로 2018년 가로수길 1호점에서 시작해 2024년 아모레 에비뉴에 3호점을 오픈한 컨플릭트스토어다. 올해는 정동과 가로수길에 새로운 매장 오픈도 준비 중이다. "2호점인 잠실점을 오픈한 시점부터 다양한 곳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점을 선택한 건 공간이 가진 상징성이 중요했고, 트렌드에 민감한 직원들과 함께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오픈해, 3년간 매장을 운영해오며 박진훈 대표는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공간을 방문하는 이들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피드백 역시 빠르다는 점을 체감했다. 덕분에 아모레퍼시픽점은 컨플릭트스토어가 벌이는 다양한 실험을 가장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이 됐다. "로투스 크런치 라떼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도 이곳에서 처음 레시피를 도입해 전 지점으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신메뉴를 가장 발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이 매장을 방문해야 할 이유는 여럿이다. 다른 지점에서 평균 20가지 정도 제공되는 원두 선택권이 이곳에서는 최대 25가지까지 확장되기 때문. 커피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그너처 메뉴 두 가지 역시 놓칠 수 없다. "활력 있는 기업 이미지에 맞춰 바질과 레몬을 활용한 바질 레몬 피즈 티, 그리고 헬시한 루바브 주스를 새로운 메뉴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커피에 비해 직관적인 맛의 강도가 약한 티는 자체적으로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쳐 맛의 타격감을 보다 높이도록 고민했죠." 2018년 브랜드를 론칭하던 때와 비교하면, 요즘은 고객들의 커피 지식이 놀랄 만큼 높아졌다는 박진훈 대표. "과거에는 소수의 카페들이 트렌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똑똑한 개인이 브랜드에 역으로 취향과 트렌드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모레퍼시픽점은 그에게도, 브랜드 전체로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누군가의 영감의 창고가 되어주는 이곳에서, 나만의 취향을 찾는 시간을 차분히 누리보는 건 어떨까.



컨플릭트스토어 박진훈 대표의

*Favorite Brand*



**설화수(Sulwhasoo)**

설화수는 브랜드가 지닌 레거시가 분명하다는 점이 늘 인상 깊었어요. 전통적인 한방 철학과 최첨단 기술이 함께 담겨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탄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음생 캡슐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conflictstore 영업시간 평일 07:30~21:00, 주말 10:00~21:00



왓어샐러드 김강희 대표의  
*Favorite Brand*



**헤라 옴므(HERA HOMME)**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아모레퍼시픽 방문 판매원이셨어요.  
덕분에 접하게 된 브랜드인데,  
쑥스럽지만 34세에 처음 스크림을  
발라본 제가 지금까지 피부를 꾸준히  
지킬 수 있게 해준 제품이기도 하죠.

**왓어샐러드 *What A Salad***

국내 샐러드 브랜드의 선두 주자로서 벌써 10년째 커스텀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희 대표.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2014년 문득 찌개와 돈가스, 제육볶음이 반복되는 점심 풍경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 점심 식사로 샐러드를 즐겨 먹었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도 다양한 메뉴 선택지가 있다는 걸 제안하고 싶었던 것. 그렇게 2016년 이태원에 왓어샐러드 1호점을 오픈했다. "당시만 해도 샐러드 전문점이 전국에 네 군데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은 왓어샐러드.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을 시기에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입점 제안까지 받게 된다. 이제는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수차례 변화한 아모레 애비뉴에서 왓어샐러드는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켜온 가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이 섬세한 입맛을 가진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매일 새벽 가락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 또한 왓어샐러드는 재료를 큼직하게 썰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재료를 잘게 다지는 칩샐러드를 고집한다는 점에서도 여타 샐러드 가게와 차별화된다. "아무래도 한국은 국물 문화라 손가락이 익숙하니, 떠먹는 칩샐러드를 포크형 스푼과 함께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한 거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2년마다 대대적인 리뉴얼을 하는 것도, 꾸준히 선택받는 이유 중 하나다. 토르티야를 활용한 랩샐러드를 추가한 데 이어 3월에는 연어 스테이크가 주인공인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어서는 라이스페이퍼를 활용한 메뉴도 추가로 준비 중이다. "10년 전에는 단순히 칼로리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조리 방식을 택하는지 묻는 손님이 늘어났어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꽤나 반갑게 느껴집니다.(웃음)" 한편 아모레퍼시픽점에 이어 차호점 오픈을 계획하며, 샐러드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 실험에 힘쓰고 있는 김강희 대표.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발맞춰 왓어샐러드 역시 또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문의 @whatasalad 영업시간 평일 09:00~20:30, 주말 11:00~20:30





# The Beauty Edit

계절이 바뀌는 시기, 피부와 일상의 리듬을 새롭게 정돈할 때다. 에디터가 눈여겨본 이달의 추천템을 모았다.

editor LEE JU HYUN



## HOLITUAL

피부 컨디션에 따라 클렌징 제품도 점검이 필요하다. 피부가 예민한 시기에는 밀크 타입 클렌저로 부드럽게 세정해보자.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투명하고 건강한 피부 톤을 만들어준다.

**홀리추얼** 리디파이닝 클렌징 밀크 200ml 4만6천원.

## Sulwhasoo

피부 톤과 결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틴티드 크림. 가벼운 사용감으로 피부 분연의 결을 살리면서 하루 종일 산뜻한 피부 표현을 유지해준다.

**설화수** 퍼펙팅 틴티드 크림 SPF40/PA++ 35ml 8만원.



## HERA

입술과 볼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해주는 립 앤 치크. 부드럽게 밀착되어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

**헤라** 센슈얼 립 앤 치크 7g 4만5천원.



## VITAL BEAUTIE

멀티비타민으로 일상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채워보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하루 한 팩으로 충분하다. **바이탈뷰티** 액티브 멀티팩 30일 2.21g×30포 6만원.



## primera

예민해진 피부에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다. 쿨링감 있는 젤 텍스처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장벽 케어를 돕는다.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당 젤 크림 100ml 6만2천원.

## AMORE PACIFIC

고농축 폴리페놀 성분이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회복 앰플. 피부 장벽을 강화해 피부 컨디션을 탄탄하게 가꿔준다.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라 앰플 익스트렉트 앰플 30ml 14만원.



## makeon

데일리 케어뿐 아니라 환절기 스페셜 케어에도 적합한 뷰티 디바이스.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을 모두 적용해 4-in-1 케어를 제공한다.

**메이콘**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47만5천원.



HOLLITUAL



Core Lift  
Activating Serum

Hydrolyzed Collagen, Gold

HOLLITUAL



Micro Balancing  
Essence

Raffino-Lacto  
Trap Water™  
78.03%

HOLLITUAL



Permental Smoothing Lotion

HOLLITUAL



NUTRI ELIXIR  
MIST

no. 670

# HYANGJANG

향장

Skin Longevity is the *New* Standard

